

서거석 “교육이 군산 자존심 돼야”

〈전 전북대 총장〉

군산시청 기자회견… “교육을 통해 군산을 서해안 1번지, ‘동북아의 창’으로 육성해야 할 것”

제18대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7일 “교육이 살아야 군산이 살 수 있고, 다시 교육이 군산의 자존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전 총장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산시민의 교육열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교육을 통해 군산을 서해안의 1번지, 세계로 나가는 ‘동북아의 창(窓)’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전 총장은 군산과 관련한 교육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군산에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시간여행축제’가 있는데 이런 지역 축제와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사업 확대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와 애함심 고취 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산은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寶庫)로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군산교육지원청과 군



제18대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7일 “교육이 살아야 군산이 살 수 있고, 다시 교육이 군산의 자존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문화원, 근대역사박물관 등과의 협력체제 강화로 현장체험과 역사바로 알기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를 공동 주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서 전 총장은 “군산의 높은 교육열에 맞춰 기초학력과 일반고 학력을 증진하고, 기초학력 미달로 더 이

상 학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교육감 1기 때 해체된 ‘사학지원팀’을 부활시켜 일제 강점기 이후 재정이 어려운 국가를 대신해 뜻있는 설립자들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중학교 학군 문제는 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 전 총장은 “이번 선거는 불통과 오만의 구체제 연장이나, 소통과 겸손, 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으로 교체나 대결”이라며 “교직원 모두 자긍심을 갖는 학교,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총장은 전북대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주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소년법학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15대, 16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열정과 헌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국 40위권 대학을 10위 내외로 발전시켜 위상을 높였다. /군산=김관근 기자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홍보 시작

군산시, 도내 학교 방문 교장선생님 면담 홍보

군산시(시장 문동신)가 오는 5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가족청소년과 계장급 공무원으로 편성된 5개 홍보팀을 구성하고 군산지역 초·중·고등학교 80개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 면담 홍보를 실시했다.

홍보팀은 학교를 방문해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행사 규모와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대

한민국청소년 박람회 참여를 각 학교별 학사일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다수 학교에서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세부 일정을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난 5일 군산시청 복지관 광국 8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 40명을 팀장으로 하는 도내 전 주·익산·김제 소재 중·고등학교(134개교) 전담 홍보팀을 별도 편성하여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한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관내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익산시의원들은 7일 익산시 신용동 소재 원광효도마을과 신흥동 소재 기독교삼익을 차례로 방문해 쌀, 라면,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위로하고 덕담을 나눴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합류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 상품권으로 명절 상품 및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소병홍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들과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찾아 사랑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날, 함께한 의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어 훈훈한 시간이었으며, 최근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졌음을 말하며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부렷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일자리 창출 앞장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신년 회의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난 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일자리 정책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신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10,733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85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으며, 2018년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으로 5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그 주요내용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추진 △사회적 경제 조적 육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도시재생사업, 관광인프라구축, 첨단농업 기반구축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토의내용으로는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교육, 신규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산업단지 지역에 버스노선 개설,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나가려면 무엇보다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우량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자리 문제는 익산시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및 자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해 지역 일자리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효율적 조정과 심의,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일자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노동계·학계·기업·공공기관·사회적경제·청년층 등 13명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익산시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구독신청 288-9700



이만수 전 SK와이번스 감독 익산시에 야구용품 기증

야구계의 헬크로 잘 알려진 이만수 전 SK와이번스 프로야구 감독(현 헬크퍼데이션 이사장)이 7일 익산 시청을 찾아 800만원 상당의 피칭머신 1대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은 이만수 이사장과 이선호 익산시아구소프트볼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익산시 유소년 야구 발전에 대한 바람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피칭머신 제작업체 광광의 홍보 모델로 1억원을 유소년 야구발전을 위해 기부해 전국 12곳의 아마추어 야구팀에 피칭머신 1대씩을 기증하는 ‘유소년 야구 꿈나무 피칭머신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증받은 야구용품은 익산시아구소프트볼협회에 기증되어 익산시 유소년 야구발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추진

군산시, 내달 2일까지 접수

군산시는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경우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1대당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1년 이상 등록된 경우차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면허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다음달 2일까지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관근 기자

군산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군산시는 설 연휴기간 전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 23일까지 폐수무단방류와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시에서 운영되는 특별감시반은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홍보와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설 연휴 전(2월1일~14일)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2월15일~18일)에는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및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염의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펼친다.

또한 설 연휴 후(2월19일~23일)에는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